

9·10

우리네

www.uriseed.com

발행일: 2005. 10. 1. 통권 15호

2005 September/October VOL-15 발행처: '박종영' 발행처: '우리꽃' 주소: 경기도 이천시 오가면 송곡리 689(우467-872) TEL:031)634-7990 FAX:031)634-7991

꽃잔디 '레드아이'

테마가든 스케치-연재 ⑨

조경용 지피식물의 규격 재배, 문제와 전망



화분에 담긴 그 자체로 효과를 볼 수 있게 한 그라스류

이제 조경을 숙근지피식물의 시장은 안정되어 고급화추세가 뚜렷하다. 더욱이 우리꽃의 우리넷신문을 통한 국내 조경계에 널리 전파되는 고급화경향의 가속화를 가져 온 듯 하다.

현재 아파트공원의 고급화는 상당부분 완화가 되었고 골프장, 펜션, 각 지자체의 테마공원은 물론 도로가에 이르기까지 고급종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규격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현장의 담당자, 혹은 가든디자이너 등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경의 준공이 곧바로 조경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배관행 때문이며 조경계와 식물생산 농가와의 생산규격에 대한 합의도

출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정 위주의 설계와 규격의 괴리는 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통 국내 조경을 숙근초의 규격은 3치(9cm포트)가 기본이고 일부 품목이 4치(12cm포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미실했을 때 하자가 적은 식물들은 포트재배가 아닌 땅에서 곧바로 재배하는 토경재배를 하고 있어 필요시마다 뿌리를 뽑아 이용하게 되는데 식물마다 2-3분얼 혹은 3-5분얼, 개화구, 포기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최근엔 플러그묘라는 최소육묘단위의 규격도 일부 대형공사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조경을 숙근지피식물의 시장이 커지면서 품목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됨은 물론 전문 가든 디자이너들의 출현 또한 가속화되며 현장에 완성된 이미지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생산농가, 조경설계자 등의 서로 각기 다른 식재 재배 규격의 계산법은 비용의 증가 등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정 효과를 가지기적으로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록스(좌)와 맥문둥(우)을 외국에는 7치(화분)에 재배하여 식재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경계가 규격에 관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고 이를 생산농가에 제시해 줄으로써 설계와 시공의 내용이 통일되도록 한다. 이때 생산의 포트크기만을 정할 게 아니라 식물의 크기까지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생산농가들의 재배관행의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규격의 비협조화로 생산농가들의 생산회피로 인한 규

격의 편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수련의 규격으로 2-3분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산규격이다. 이 경우 약간의 적응기가 요구되는 현상은 그 규격을 성장점을 포함한 20cm뿌리줄기가 규격이면 좋다. 표현하면 개화구 L=0.2로 표현하면 된다.

그리고 현장적용 후 바로 완성형 규격은 화분 7치, 꽃대 2-3축 등으로 하면 식재후 곧바로 개화가 진행될 수 있는 상품이 된다.

셋째, 규격화를 염두에 둔 설계협회의 중요하다.

현재의 예를 들면 보통 옥잠화의 경우 1m당 20본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낭비적인 요소는 물론 경관을 오히려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간혹 우리는 잡지 속에서 아주 좋은 포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 옥잠을 목격하는데 보통 좋은 포기로 1m에 3-4포기정도 식재된다. 따라서 오히려 1m당 너무 많이 심게 되면 1년 혹은 2년에는 오히려 경관을 망치는 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옥잠의 규격은 7-육치 화분에 5-7축의 뿌리가 완벽한 것을 1m당 3-4본을 설계하되 설계영역을 옥잠 20본의 가격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 1m²=2-3분얼 20본X1200=24000원, 변경 1m²=5-7분얼(7치화분) 4본X6,000=24,000원으로 한다면 식재비용은 물론 조경의 완성되는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획득될 수 있다. 또한 농가들의 재배관행을 스스로 바꾸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더욱 아름다운 수형의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쉬운 예로 나무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남동쪽의 상대적 유통비가 있는데 반해 숙근 지피식물의 경우 건상태는 뒷전이고 포트규격과 가격이 관련이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조경계의 발등 찍기는 이제 중단이 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품종의 마스플라워 온 용기에 재배되고 있다.

우리꽃의 자회사인 야생과 진문 조경회사인 (주)썬비리아프는 현장조경시 현장에서 알맞은 규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시공하며 더 큰 효율과 평가를 얻고 있다. 역대 1m당 25본의 설계치에 1m당 큰 포기 한포기만 심어도 맞추는 데에 만족하고 고급조경의 대표 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은 그냥 그럴바리엔 너무 시장이 빠른 속도로 다변화되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규격으로 큰 화분에 옮겨심는 장면

contents

- 현장묘로 2면
- 대표적 조경식물군 4면
- Small Garden Project 6면
- 조경지식들(이론적) 12면
- 지식들 15면
- 음식물로 2면
- 수중,수변식물의 물바람 아래 5면
- 현장묘로 7.8.9면
- 특집 12면
- 세로로 우리조경인상 대성 15면

현장리포트

우리랜드 꽃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들꽃단지 조성

윤인사 원상면에 위치한 윤인사농업기술센터의 바로 옆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체험학습장으로 조성되는 '우리랜드'는 대단위의 면적에 들꽃단지, 주말농장, 산채체험장, 농기계 전시실, 우리농산물 판매소로 설계되어 2004년 11월에 착공되었다.

들꽃단지 및 뽕면조성공사를 맡아 올 5월부터 시공을 시작했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랜드의 거의 정반편을 (약 12,000㎡) 우리법면4호로 씨드스프레이 하였고 일부 마사질이 강한 지역은 녹생토 3T정도로 시공하여 종자의 흘러내림을 방지하였다.



파종지역에 만개한 황화코스모스



우리법면4호 녹생토 시공정면

우리법면4호는 5월22일 첫 시공되어서 본격적으로 7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꽃담배를 시작으로 춘차국, 황화코스모스, 파종 등 1년생이 차례로 화려하게 피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

로 숙근초들이 화려하게 법면을 장식 하리라 기대가 된다.

들꽃단지는 약 5,000평 정도의 면적에 위에서 아래로 경사가 있으며, 중간에 연못 1개소와 계류지 2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들꽃단지는 크게 파종 지역과 파종+숙근초식재, 숙근초식재지로 나누어 지는데 파종지역은 1년초를 파종하여 계절감을 살리고 있다.

먼저 올해는 해바라기, 코스모스와 황화코스모스 등으로 가을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내년 봄은 금련화, 꽃양귀비, 안개꽃으로 또다른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파종지역은 들꽃단지의 중요한 볼거리중 하나로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파종+숙근초식재지역은 구근과 1년초의 조화를 염두에 둔 조성지로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30여종이 넘는 다양한 품종의 구근다양리아가 아름다움을 이어나가고 봄에는 1년초인 금련화, 꽃양귀비가 노랑과 빨간으로 물들인 것이다.

숙근초 식재지역은 크게 일반식재 지역과 혼합식재 지역으로 나누어 지는데, 일반식재는 지역별로 단일 품목으로 식재가 되어있다.

첫번째 품목은 개량후룩스로 380㎡의 대면적에 10개의 품종을 식재하였는데, 품종별 화색, 초장이 달라 품종간의 혼색으로도 다양한 연출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옆으로 개량 감국이 식재되어 있고 그 아래로 숙근코스모스 분출, 노랑, 지피, 하얗이 구역별로 나누어 심겨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꽃무릇과 저면아리사가 혼색식재되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가장 아래쪽 도로와 들꽃단지를 구분짓는 쉼스 앞으로는



숙근초 식재 정면

사스타데이지, 아스타가 일식이 되어 있어 우리

랜드 방문객에게 밖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혼합식재는 7곳에 나누어져 있는데, 돼성종과 중·고성종으로 구분하여 식재지를 달리 하였다. 혼합식재는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하는 시스템으로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와 꽃을 선사하며 아름다움을 연출해 줄 것이다.

뜨거웠던 여름과 장마를 지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식물들을 보며 내년 한껏 더 아름다워질 우리랜드를 생각해 본다.



꽃이 피기시작하는 우리법면4호

업 그레이드 고급소재 무늬종 시리즈⑨

아름다운 초형의 고급무늬역새 "모닝라이트"



역새는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존재하며 조경용으로도 각광받으며 즐겨 쓰이는 소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몇 년전부터 조경용소재로 많이 이용하고 특히 대단위 군사용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번호에서는 무늬종역새로 초형이 매우 아름다운 '모닝라이트'(Miscanthus sinensis 'Morning Light')를 소개하고자 한다.



모닝라이트

그린라이트

모닝라이트는 모든 역새품종중에서 정밀식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품종 중의 하나이다. 키는

초형이 아름답고 폭립수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무늬종이어서 녹색과 갈, 갈을 모두 잘 어울려 팔팔경의 그린주변, 수변 등지에 식재하면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으며 화분에 심어도 아름답다.

일부 역새품종은 내한성에 문제가 있는데 '모닝라이트'는 내한성이 강한 품종으로 생태적인 특성은 역새와 비슷하여 생육이 강건하고 잘 자라며 병해충에도 강하고 반음지에서 도 잘 자란다. 포기로 번식하기 때문에 주로 번식은 분주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른 봄과 가을에 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품종으로 '그린라이트'가 있는데 '모닝라이트'와 비교하여 잎에 무늬만 없을 뿐 크기와 초형 등 형태적인 특성이 똑같이 진녹색의 잎과 초형이 잘 어울리는 품종이다. 현재에는 국내에 적용사례가 드물지만 '우리꽃'에서 가을부터 '그린라이트'가 출시되었고 내년에는 '모닝라이트'를 선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급조경 소재로 많이 활용되리라 기대해 본다.

모닝라이트

그린라이트

일반무늬종과는 비교가 되지않는 화려함

개량후룩스

20품종 구비

꽃이 화려하고 화형과 화색이 다양
화기나 길에서 언제든지 길가까지 장식
꽃중심의 혼색으로도 아름다운 경관 연출

자연을 닮은 시냇물
우리꽃 (구입문의) 031-634-7990

특별기획 >> 종자프로젝트-③ 겨울 휴경, 유휴지를 이용한 경관축제의 해는 종자에 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앞을 다투어 봄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저마다 튀기(?) 위한 노력으로 어찌 보면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번 기회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니 관심있게 읽어주시기를 기대한다.

대면적 지역축제는 뽕나무나 배나무도 넓은 경관적 이해가 우선성으로 일치가 된다. 이는 경관농업에도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 유채농업이 그렇고 평양의 매밀농업이 그렇고 함평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자운영 녹비작물이 그렇고 고창의 보리재배, 나주의 배꽃축제, 하동의 매화꽃, 구례와 여주의 산수유 축제 등이 농업과 연결된 지역축제의 성공사례이다. 또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뿌리고 있는 유채꽃은 하천이나 유휴지를 이용한 경관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농경지가 되었던 하천이 되었던 또 다른 유휴지가 되었는 간에 봄 축제의 최고와 화려한 경관연출의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식물들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작물 중 대표적인 월년초는 바로 보리와 밀 그리고 유채, 자운영 등이 있다. 이들 식물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을 맞고 이른 봄에 개화하는 식물이다. 이들 보름녹색감옥들(푸른잎상대로 추위를 견뎌야 개화하는 식물)이라 하고 월년초라 한다. 보름겨울을 보낸뒤에 봄이 되면 이 품종으로 이들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동절기에 생육하므로 기온하락의 피해나 다른 재물이 없이 적은 비용으로 아주 화려한 꽃을 피워낼 수 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양귀비축제를 펼친 포천의 바로꽃밭(현재 부경관식물원으로 개칭)의 양귀비가 바로 월년초의 특성을 가진 식물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 경관식물은 유채가 되어 버렸다. 물론 진달래, 철쭉, 빛나루 등의 수목류를 제외하면 말이다. 따라서 식상한 시민들이 늘고 있다. 자 이제 각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월년 경관식물을 유채지는 물론 비농사 지역의 겨울 휴경농지에 녹비작물을 겸해서 선택적으로 재배해 보면 어떨까? 장난 열광이 대단인 양귀비 경관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포천의 부경관식물원은 양귀비를 포함한 더욱 확대된 경관 연출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한강에는 유채가 뿌려질 것이다. 또 함평은 자운영과 유채를 뿌리게 된다. 어디가 집중조망을 받겠는가?

일본의 대표적인 경관공원인 후지이도 후리노의 광도미타(메인사건)의 식물들 대부분이 월년초를 이용한 경관연출이다. 이들이 주목한 것도 바로 월년 초를 이용한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경관연출로 지역축제의 새로운 대안요소로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들 월년초는 종자로 번식하고 파종에 의해 더욱 효과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이는 비용 절감은 물론 짧은 시간에 동일한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꽃은 몇 달 지자체에 베풀 베풀고 난 겨울에는 이들 월년초인 화려한 식물들을 뿌려 이른 봄 최고의 꽃축제를 제안하여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고 내년에는 실험지자체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월년초를 이용한 경관연출의 문제점

은 무엇일까?

첫째, 종자의 확보이다. 단적으로 각종 지자체의 예산이 가을에 집중되어 있어 다음에 이용되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 월년경관식물을 이용한 프로젝트는 가을에 집중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종자의 확보가 이전 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공한 지역축제를 위해서는 전시적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유채도 월년식물이므로 양귀비도 월년식물이다. 이 말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역에 알맞은 종류를 선정하고 식물성장 특성과 모양 이

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도입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상품과 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꽃 경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면적을 필요로 한다.

보통 월년경관식물은 일시에 개화하고 색이 강렬한게 특징이다. 따라서 작은 면적에 일상의 연출로는 주목 받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관을 농업과 연계한 브랜드 개발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넓고 큰 면적으로 지역축제를 통해서 하나의 큰 공간이 완성될 수 있는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넷째, 식물들 특성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식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004년 우리꽃은 여의도 공장에 브라발을 연출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을 축제기간에 정확하게 꽃을 피우는 것 이었다. 그 당시 우리꽃의 직원들은 불철주야 온도 가두기와 또 불꽃 그리고 열매를 등 관리에 있어 이 분야의 성공을 이루는 최고의 공로자들이었다. 결국 행사 당일 모두가 환호하는 속에서 피

로 누적으로 쓰러진 직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만큼 식물들의 특성과 생리를 잘 알아야만 적절한 시기에 꽃을 피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봄이 오면 노란 물결이 있는 강변이 아니라 노랗고 빨갛고 분홍, 주황 그리고 보라색, 흰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지역축제의 테마식물을 감상하는 그날이 빨리오기를 바라면서 내년 포천 부경관식물원의 양귀비와 기타경관식물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은 무엇일까?
첫째, 종자의 확보이다. 단적으로 각종 지자체의 예산이 가을에 집중되어 있어 다음에 이용되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 월년경관식물을 이용한 프로젝트는 가을에 집중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종자의 확보가 이전 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공한 지역축제를 위해서는 전시적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유채도 월년식물이므로 양귀비도 월년식물이다. 이 말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역에 알맞은 종류를 선정하고 식물성장 특성과 모양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봄 경관식물인 유채

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도입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상품과 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꽃 경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면적을 필요로 한다.

보통 월년경관식물은 일시에 개화하고 색이 강렬한게 특징이다. 따라서 작은 면적에 일상의 연출로는 주목 받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관을 농업과 연계한 브랜드 개발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넓고 큰 면적으로 지역축제를 통해서 하나의 큰 공간이 완성될 수 있는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넷째, 식물들 특성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식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004년 우리꽃은 여의도 공장에 브라발을 연출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을 축제기간에 정확하게 꽃을 피우는 것 이었다. 그 당시 우리꽃의 직원들은 불철주야 온도 가두기와 또 불꽃 그리고 열매를 등 관리에 있어 이 분야의 성공을 이루는 최고의 공로자들이었다. 결국 행사 당일 모두가 환호하는 속에서 피

로 누적으로 쓰러진 직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만큼 식물들의 특성과 생리를 잘 알아야만 적절한 시기에 꽃을 피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봄이 오면 노란 물결이 있는 강변이 아니라 노랗고 빨갛고 분홍, 주황 그리고 보라색, 흰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지역축제의 테마식물을 감상하는 그날이 빨리오기를 바라면서 내년 포천 부경관식물원의 양귀비와 기타경관식물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월년초는 분류할 때 다년초와 1년초, 그리고 월년초라는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봄 경관연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품목들은 바로 월년초에 있다.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③

Aster속

국화과의 대표적인 속 중의 하나로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 등 약 250종이 있다. 대부분 가지가 많은 줄기를 가지며 잎은 호생하며 전체적으로 녹색이며 청형의 잎을 가진다. 종에 따라 털이 없거나 부드러운 털이 있기도 하다.

Aster속 중 대표적인 자생종으로는 별개미취, 쑥부쟁이, 해국 등이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스타'라고 부르는 품종은 수많은 품종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품종들이 분포되어서 유통되고 있지는 않다. 크게 형태적으로 초장에 따라서 왜성종과 고성종이 있고 꽃은 홀꽃과 겹꽃이 있으며 꽃 색상도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흰색 등 다양하여 가을의 대표적인 꽃으로 조경에 널리 쓰이고 있다.

자생종

우리나라의 대표적 조경지피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별개미취(Aster koraiensis)이다.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꽃이 크고 생육이 강건하여 지피력이 매우 뛰어나다. 전국적으로 도로변, 공원 등 어디에 가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심겨져 있어 이제는 오히려 식상하기까지하다. 일반적으로 별개미취가 수변식물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데,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며 꽃과 잎 또한 더욱 더 보기가 좋다.

해국(Aster spathulifolius)은 주로 바닷가주변에서 자생하며 해풍 등 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지체가 두껍고 털이 많다. 몸 전체에서 나는 향기가 뛰어나고 건조에도 강하고 지피력이 뛰어나 암석조경 등에 종으로 가을꽃이 피면 자주색의 꽃방울을 연상시킨다.

쑥부쟁이(Aster yomena)는 우리가 들국화라 부르는 식물과 신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화기가 길고 서리에도 강해 가을 마지막까지 남아서 꽃을 피운다.

이 외에도 아스타속 자생종으로는 조경용 또는 나뭇이나 삼 등의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미취, 참취 등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피식물들이 조경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활발히 이용되는 다양한 지피식물들을 식물군(Genus)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과 품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스타

왜성종

일반적으로 키가 40cm미만의 품종들로 꽃의 형태, 화색 등이 다양하고 많은 품종들이 존재한다. 공원, 정원 등에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가을꽃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품종이 존재하므로 품종간의 혼식만으로 쉽게 아름다운을 연출할 수 있다. 대부분 9~10월에 꽃을 피우는데 일부 품종은 초여름과 가을 2회 개화하는 품종이 있는데 우리꽃에서 판매하고 있는 왜성아스타 '준주'라는 품종도 이에 속한다.

고성종

키가 약 70cm이상인 품종으로 왜성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며 가을의 대표적인 꽃으로 뽑을 수 있다. 키가 크기 때문에 혼식시 뒷줄식물로 사용하면 좋다. 특히 도로변 등에 군식 또는 열식하려면 시각적으로 어느정도 커야되므로 도로변에 아스타 고성종을 적용하면 매우 유리하며 또한 가을 도로변을 매우 아름답고 다채롭게 꾸밀 수 있다. 키의 초장을 조절하고자 한다면 꽃피기 전 7~8월경에 1회 적당한 크기로 손자르기를 해줌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주로 번식은 분주 또는 삽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성아스타 '준주'

아스타는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존재하며 뿐만 아니라 고급조경용 소재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품종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해성아스타, 숙근아스타라고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꽃에서는 올 가을부터 보라, 분홍, 흰색 등 화색이 다양하고 꽃의 형태(홀꽃, 겹꽃)가 서로 다른 고급종 아스타 10품종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제 아스타도 가을을 대표하는 조경용소재로서 주요 품종군으로 자리잡을 때가 된 것 같다.

육상,암석 가든용 식물 연재-③

강렬한 빨간색 꽃잔디 '레드아이'



꽃잔디는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는 소재로, 육상, 락가든용으로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현재 우리꽃이 선보인 꽃잔디 '레드아이' (개량꽃잔디)에 뛰어들어 새롭게 선보이는 신품종 꽃잔디 '레드아이' (Phlox subulata 'Scarlet Flame')도 육상, 락가든용으로 안정맞춤 소재이다. 꽃은 4~5월에 피며 꽃의 크기는 '레드아이' 보다 작고 일반꽃잔디와 비슷하지만, 다화성인 빨간색의 꽃은 매우 강렬하면서 화려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 제격이다. 꽃잎은 별모양으로 강라지않으며 꽃중앙에 빨간눈이 들어있는 것이 또한 인상적이다. 잎은 삼색이고 군식하거나 돌무 등에 식재하면 좋고 특히 꽃잔디 '레드아이' 등과 반달이 식재하면 잘 어울려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꽃잔디의 새이름 '레드아이'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소재로 내년 봄 다가갈 것이다.

수중,수변식물의 올바른 이해 연재⑨

블루색의 시원한 여름 고급 연못식물 "화룡물사초"



화룡물사초는 국내 도장에 소개되지 않은 식물이다. 2001년 필자가 백두산 화룡지방의 숲속 연못에서 발견하여 육식한 소재이다. 잎이 블루색으로 강하고 곧은 느낌으로 수심 10~20cm에서 큰 군락을 이루며 습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왕 산자 사초를 담았으나 백반이 많은 파랑색의 잎이 완전히 다릅니다. 추운 북쪽에서 생육하는 관개로 남쪽에서의 생육을 열려했지만 벌써 5년째 너무 아름답고 시원한 연못을 연출하는 최고의 수중, 수변식물이라 할 수 있다.

줄기는 지하경으로 뻗으면서 튼튼하고 강한 블루색의 많은 줄을 내면서 색깔을 위하는 모습이 용맹하게 생겼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 수중의 그라스 종류가 빈약한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유용한 식물이다.

꽃은 5월에 피는데 꽃이 필 때는 연록색을 연출하고 수꽃의 수염도 장관을 이룬다. 번식은 주로 새로운 줄기 포기를 떼어내어 식재시 보통 16~25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혹시 생장기 식재시 줄기가 꺾여지거나 하면 아예 수면 정도에서 잘라주기 10여일 후면 다시 아름답게 자란다.

매우 강건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것은 없고 간혹 매뚜기 등의 벌레에 의한 가식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조심해야 한다. 또 자연 회복력이 대단히 빠르므로 자연형 하천의 물갈이 빠른 곳의 피복제로 적용하는 생태하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 작은 가령연못에 제법할 경우에는 작은 화분 등에 심어 연못에 넣어두면 흡사 부들이나 줄줄 등의 작은 소형 소재처럼 느낄 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

연못은 작은데 부들이나 줄 같은 큰 식물을 심으면 도시의 작은 연못은 그 경관적 이미지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 대안으로 아주 유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5월에 피는 꽃



분얼이 매우 왕성한 모델로

연재③ Grass Scapes

연세가 불려지지 않은 우리의 친근한 고급 조경소재 수크령



가을을 대표하는 테마 조경소재는 단연 연새와 구절초 그리고 아스타종류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하면 너무도 서러워할 소재가 있다. 바로 수크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로 길가둑이나 발목 하천가 혹은 해변가의 연억울밭에 나는 식물이다. 일반적으로 이 수크령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만 큰 군락을 무리지어 피어날만 장관을 이루는 식물이다. 우리는 이번이 청계천이 시민길로 돌아왔다고 좋아들 하고 있다. 바로 이번 개천에 앞서 가장 환영받은 식물이 수크령이었다. 물론 우리꽃에서 대단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였기에 우리로서는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수크령은 그야말로 잡초의 성격을 그

로 재배할 경우에는 주변에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 수크령의 절정기는 뭉치로도 아삭을 피우고 난 때이지만 독립의 큰 포기로 키를 경우로는 꽃이 피지 않아도 좋은 관엽의 가치를 지니는 식물이다. 번식은 포기 나누기와 분주법이 있으나 종자번식의 경우 단명종이므로 1년경과 전에 이용되는 것이 좋고 각 지역별, 포기별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주 아름답고 우수한 개체가 있으면 포기나누기로 번식하면 좋은 우량의 식물소재를 구할 수 있다. 약간 건조한 땅을 좋아하므로 습지에는 좋지 않다. 따라서 하천부지에 적용할 경우 약간 건조기가 있는 장소를 택하여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을 가을 화본과의 멋진 야생미를 느껴보길 바라며 그 중에서도 수크령의 당당함이 최고임을 느껴보시길...

Small Garden Project - ③



분수는 연못에 신선한 움직임을 주고
소리를 붙여넣는 아주 특색있는
아이템이다.

또한 안쪽에 조그만 특징을 만들어 주
도록 벽에 설치할 수도 있다. 분수는
수중연못펌프에 의해 작동하는데, 만약
물이 아주 깊다면 벽을 등으로 받침을
만들어 펌프를 그 위에 놓거나 한다.
분수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연못을 압
도하는 효과를 피하는 것이다. 너무 정
교하고 화려한 분수는 연못이 작으면
어울리지 않으며, 물을 높게 쏘아 올리
는 분수는 바람에 연못 밖에 물이 떨어
지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분수의 출구는 단순히 펌프 위로 돌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패턴의 물분사를 만드는 여러가지 헤드에 맞
도록 되어있다. 연못에 펌프를 분수헤드가 수면위로 나오도
록 적당한 높이를 잡고 설치한다. 벽돌이나 알맞은 크기의
물통으로 펌프 높이를 잡는다.

연못의 신선한 움직임 “분수” 설치하기

전기 펌프

보통 주 전기 공급 장치와 연결 되어 있는 변압기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는 수중 전기 펌프에 의해서 분수나
폭포의 물이 순환한다.

물은 아래의 펌프로부터 직접적으로 분수 헤드로 이동
하거나, 폭포수의 경우, 연못의 펌프와 연결된 호스에 의
해 폭포 꼭대기로 이동한다. 호스는 땅 밑으로 폭포를
따라 숨겨지는데, 입
구 끝은 물에 의해 가
려진다.

펌프의 전기선은 연
못 바닥을 따라 설치
되며, 옆면 폭으로 나
온다. 옆면의 물의 밑
을 따라오다 방수 커
넥터에 연결한 뒤, 변
압기에 연결한다. 비
록 펌프의 변압기 사
이에 케이블에 의해
이동되는 저전압 전력은 심한 전기
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케이블을 보
호하도록 한다.

전기선은 바닥에서 들뜨지 않도록
한다. 플라스틱 지하전선관을 60cm정
도 땅 밑으로 설치하여 이를 통과하
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선관을
팔 때는 식물들 식재한 곳을 피하도
록 한다. 이는 후에도 식물들 심는
라 전선관을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펌프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물의 움직이는 특징을 알아야하는데,
어떤 높이, 계류의 길이와 높이, 유속 및 크기 등을 알아두
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펌프헤드에 표기되어있다.

보통 가장에서 1m x 1m가 넘지 않는 연못을 설치한다고
볼 때, 펌프는 6w-8w사이의 전력이면 무난하다.

분수의 분사형태

분수의 헤드가 어떤 형태의 물줄기를 만드는지 알고 고르자.

총 형: 분수형태로 연속적인 총형으로 피라미드 형
태를 이루며 물이 떨어진다.

깃털형: 물이 끓어오르듯이 올라오며 깃털형태를 만
들며, 간단하며 기본적인 형태의 분수에 잘
어울린다.

거품형: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며, 낮은 분수
를 이용하여 땅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벨 형: 중앙 파이프로부터 벨 모양으로 조각한 듯한
반원구를 만든다.

기동형: 두개 또는 세개의 하얀 물줄기가 깨끗하고 꺾
곡한 방법으로 솟아올라, 주로 모던한 디자
인에 어울린다.

간헐천식: 물을 공기중으로 쏘아올리는 분수로, 가끔
아주 높은 높이로 쏘아올린다. 세차게 분
출되는 소리와 하얀 물거품들이 자연스럽
게 떨어지는 경관이 아름답다.



음식식물의 이해와 적용 연재③

임이 작고 조밀하여 질감이 뛰어난 애기아주가



아주가는 수목하부 등 음지의 지표소재로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지피력이 매우 뛰어나며 보라색
의 꽃과 잎 자체만으로도 관상가치가 있으며 겨울에도 반상
특성태를 유지한다. 아주가 또한 많은 품종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아주가를 비롯
하여 애기아주가, 왕아주가, 레인보우아주가,
윈슬루아주가 등 품종이 다양하다. 이 중
서 애기아주가(Ajuga reptans 'Chocolate Chip')
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
반 아주가의 경우 런너로 번식하여 지피력이
뛰어나지만 다른 식물과의 혼식에는 오히
려 번식이 너무 좋아 타식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윈모주
에서 런너가 뻗어 나가면서 나중에 윈모
주는 고사하고 새로운 개체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때 제대로 땅에 뿌
리를 내리지 못하면 겨울을 지나
면서 건조피해를 받으며 많은 부
분이 고사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임이 작고 조밀한 애기
아주가는 일반 런너로도 번식하지만
매우 약하며 주로 포기번식을 하기 때문
에 타식물로의 활용이 없으며 겨울에 건조피해
또한 있다.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음양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 혼식

시 앞쪽식물로 활용하거나 잎의 질감이 뛰어난 라인식물로
활용해도 좋다. 물론 수목하부 및 음지에 군식하여도 매우
좋다. 5-6월에 아름다운 보라색꽃을 피우며 꽃이 지고 난 뒤
에도 질감이 뛰어나고 조밀한 잎이 좋다.

생육이 강하고 여름에 일반 아주가는 탄저병이 자주 걸리
는데 비해 애기아주는 병해충에도 강해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특성들이 있어 애기아주는 이
제 일반 아주가를 훨씬 뛰어넘어선 우수한 음지용 지피소재
로 활용할 수 있다.



애기아주는 잎이 매우 조밀하고
질감이 뛰어나다.
여름을 지나면서 탄저병에 걸린
일반아주가

우리꽃

현장히트 품종



잎과 꽃이 좋은 최고의 관목소재

“삼색조팝”

“라인 혹은 독립으로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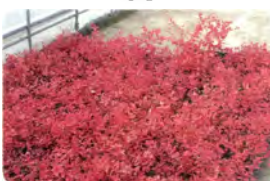
1. 아름다운 잎과 꽃이 잘 어울리는 조팝
2. 봄에 황금색에 붉은빛을 띄는 새순과 여름에 분
홍색의 아름다운 꽃.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워 최고
의 관목소재로 각광을 받고있다.
3. 공원, 도로변, 골프장 등에 외양목이나 철골 대용
으로 활용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4. 생육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나다



삼색조팝



노랑조팝



‘삼색조팝’ 가을단풍

가을을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는 최고의 소재 개량감국

인기정점 숙근코스모스 (6품종)

- 1.5월부터 9월까지 연속개화
2. 다양한 화색의 고급지피소재
3. 공원, 도로변, 골프장 등 어디에 적용해도 잘 어울리는 소재



1. 장기간 화형으로 초여름부터 꽃을 감상
2. 서리에도 강해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연출
3. 꽃이 크고 화색이 다양하다



전문성

비용

사후관리

(주) Wellbeing Life 가 야생화, 지피식물
조경식재의 새장을 열어드립니다.

조경식재번호: 동인2005-18-0002

(주) Wellbeing Life

(주) Wellbeing Life 는 조경식재 전문회사로서 많은 재배 및
식재경험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경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지피식재분야는
소재의 특성을 잘 알고 이론과 경험을 갖춘
(주) Wellbeing Life 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야생화 종자, 모종, 식재
한방에 OK!

(주) Wellbeing Life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상담문의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특집

이른 봄의 특별한 아름다움 추식구근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조경연출

잉글랜드의 시골에 봄이 막 찾아오면 들과 수풀은 꽃무리들이 피어나 마치 꽃카펫처럼 보인다. 크로커스, 히아신스, 아네모네 그리고 수선화들이 온 사방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식재한 추식구근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자연화'된 결과이다.

이러한 관리가 필요없는 풍성한 조경연출은 오늘날 바쁜 조경관리인들에게 대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 아닌가.

구근은 자연스러운 경관 창조에 이상적인 식물이다. 어디든지 심기도 쉬울 뿐더러 꽃 자체도 워낙 다양하고 아름답다. 구근을 구입하는 최소 구입비용은 기타 식물에 비해 더 저렴하다. 1회식재로 매년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포기나 계속 늘어나며 몇 해 후에는 별천지를 감상할 수 있다. 정원, 공원, 꽃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도 잘 어울리고 쉽게 키우며 감상할 수 있는 수많은 구근화해가 꽃을 심고 관리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 봄에 눈이 막 녹기 시작할 때, 나뭇잎을 들고 꽃이 피는 이러한 특별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면 그 전 해 9월부터 11월까지 땅이 얼기 전 식재해야 하는데 이는 꽃이 피기 전 추위를 견뎌야 하

아 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겨울 추위를 맞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 아주 알맞은 조경식물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형태

대의 구근적용은 이른 봄 화분에 심겨진 튤립이나 수선 등을 꽃이 핀 상태로 구입하여 화단이나 큰 화분에 모아서 심기를 하는 것인데, 이는 추식구근의 특징을 제대로 아는 조경인이 아니면 어려서는 적용법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가을에 현장에 직접 심으면 비용도 저렴하고, 관상가치도 한 달 이상 지속되며, 무엇보다 힘을 길러 다음해에 더욱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 봄과 봄꽃에 효과적으로 구근을 이용할 수 있는 화려한 조경소재가 한정적인데 구근을 이용하면 원예수 아래나 꽃이 피지 않아 환한 이른 봄 잔디밭 등을 밝고 화려하게 꾸밀 수 있다. 짙은 자주색이나 핑크색의 튤립이 한가운데 심어졌다는 경관은 멀리서도 강렬하게 시선을 끄는 효과를 주며 핑크색 알리움과 흰색 크로커스처럼 여러 종의 구근을 혼합해서 심어도 화사한 봄을 연출할 수 있다. 개화기간이 약간씩 다른 구근들을 혼합하여 식재하면 끊임없이 피어나는 봄의 색채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식재를 해 놓은 곳이라도 생육시기에 겹치지 않고 식재가 쉽기 때문에 (코팅이로 구멍을 파고 심은 후 흙만 덮어주면 된다.) 구근재의 혼합식재는 물론 기타 아생화와의 혼합식재도 추천할만 하다. 오히려 이른 봄 화려한 꽃을 감상하고 다시 기존 식물이 생육, 개화하며 계절감과 생생한 감동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

화려한 봄죽

제에서 광범한 길거리의 도로변까지 알기 쉬운 추식구근을 적용할 공간이 많다.

평범한 조경에서 벗어나 작은 면적이라도 특색있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창출하려는 사안이 필요하고, 추식구근은 그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다들 봄에는 추식구근의 튤립, 수선화 그 외 무스카리, 크로커스, 알리움 등 다양한 종류의 추식구근들로 조경연출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서두르자.



조경자재의 올바른 이해와 선택

연재③

사람과 식물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옥상조경용 경량토이용을 위한 제언

(주)한터21
대표 최 중 권



우리는 최근 옥상을 푸르게 하는 휴식의 공간을 연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내에도 조경공간을 활용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는 옥상조경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간을 펠라이트라는 용토로 만들어진 재품을 이용하고 있다.

펠라이트는 화산암의 일종으로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생긴 비정질의 광물을 고온에서 가공한 제품이다. 현재 하얀색으로 옥상기반재로 쓰이는데 바탕에 날릴 정도로 가볍고 빗물 등에 의해 떠나거나 흘러 유실되기 쉽다. 보수성이 높고 전혀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아 식물관리에 있어 양분의 지속적인 투입이 요구되는 재제이다. 그러나 이 펠라이트가 우리조경현장에 가져다 준 결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녹화의 새로운 개념으로 옥상녹화를 생각하게 한 결정적인 자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경의 역사가 발전하고 또 다른 우수한 자재의 출현을 계기로 용토에 알맞은 옥상용 및 실내용 용토에 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새로운 친환경 Soil제 '퍼틸'이 본격적인 시정진출을 앞두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제품은 순수 황토제품으로 유기물과 혼합 고온에서 구워 파쇄하여 크기별로 선별, 공급하는 제품으로 음이온발생이 매우 높은 친환경자재이다. 황토를 구워 만든 제품으로 흡수율이 높고 수 습도 견디도를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유기물이 탄화되면서 생성된 기공이 식물 생육에 필요한 액상의 양분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

다. 친환경소재의 퍼틸은 황토본래의 점질성은 없는 대신 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순기능과 음이온친화성 그리고 경량화된 친환경적 신소재 옥상용 토양이다.

물론 펠라이트에 비해 무게는 좀더 나가지만 일반 토양에 비해 훨씬 경량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뿌리의 활력 및 발근 등에 있어 여타의 상토에서 보지 못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황토제품으로 환경오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후 곧바로 일반토양에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친환경적 제품으로 특히 이미지에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옥상용 경량토로 이용되고 있는 펠라이트제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밀은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다. (왼쪽) 퍼틸 (오른쪽) Soil제

1. 펠라이트의 장단점

무선 펠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량으로 다루기가 쉬운 점이다. 보수력과 통기성이 높은 것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펠라이트의 단점도 많은데 펠라이트는 열기차란 용량이 거의 없어 양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비력이 없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때문에 펠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원예용 상토의 보조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력은 높지만 유효수분률이 낮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낮은 뿐만 아니라 한번 건조하게 되면 수분흡수가 매우 어렵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진발생

이 심하고 작업도중 옥상에 날리거나 비가 오면 물에 떠내려가 유실되기 쉽고 사설과 다르지만 미관상 산업폐기물이란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식물지적력이 낮고 큰 나무를 심을 때 하중의 문제가 있어 나무의 기둥이 굵은 물은 내려앉아 배려 활착이 어렵다.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용암에 의한 굳어지는 현상이 있어 식물의 생육이 나빠진다. 그리고 유효미생물의 생육이 떨어진다. 멀칭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친환경 Soil제-퍼틸의 장단점

펠라이트에 비해 가격이 약간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친근한 친환경적 이미지와 더불어 산재로도 토양 유효미생물의 번식이 빠르고 생육에 유리해 병충해가 적다. 흡수력과 보비력 그리고 통기성이 높아 발근촉진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사용해도 부서지지 않고 원형이 유지됨은 물론 식물의 지적력이 강해진다.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소재로 이용 후 곧바로 일반토양에 처리해도 토양개량의 효과가 있다. 연못안에 마감재도 이용해도 유효미생물의 흡착과 오염물질의 흡수로 수질정화능력은 물론 수생식물의 적절한 생활터전이 될 수 있다. 물론 황토제품으로 실내 배관이나 용토로 사용했을 때 숨을 쉰다는 공기 중의 습도를 유지시켜 사람과 식물 모두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경량으로 다공질의 탄공극은 식물의 보비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최고의 점질성은 부공극인 황토를 원료로 하여 공급이 용이하고 친환경적 품의 특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멀칭재를 이용하지 않아도 친환경적 미관연출이 가능하다.



비밀은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다. (왼쪽) 퍼틸 (오른쪽) Soil제

추 식 구 근

주변을 서둘러 주시십시오. 빠른수록 우량의 품종 공급이 가능합니다.

추식구근 주문을 받습니다.

[작 품목별 특성 및 최소주문량]

품 목	화기(월)	화색	키(cm)	식재수/m ²	식재 깊이(cm)	최소량(개)
알리움몰리	5-6	노랑	30	120	5	1000
알리움 기간티움	5-6	분홍	100	16	15	100
아네모네블란다	3-4	혼합	15	120	3	1000
크로커스	3-4	혼합	10	100	5	1000
프리틸라리아	4-5	혼합	80	16	15	100
무스카리	4-5	보라	15	120	5	1000
수선화	4-5	흰,노랑	20-40	20-50	10	500
튤립	4-5	혼합	30-50	50	10	1000

자주들 방문 환영



(구입문의) 031-634-7990



경주용 타이어 전문회사가 만든 **친환경 라이너**

파이어스톤

자연친화적
뛰어난 유연성
탁월한 내구성

가정용, 옥상배란다 등의
소형연못 최고의 선택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은 비결정성고분자물질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물과 접촉시 내열, 수분 등 독 식물에 해로운 성분이 유출되지 않으며, 고무특유의 냄새가 없어 조류, 물고기, 식물 등에 피해가 없고 열가소성 반초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오후와 지열선에 강하다.

판매처 : 베스트가든 (02)502-0221

기다렸다!!

상록잔디패랭이



잔디패랭이와 왕상록패랭이의
장점을 고루 갖춘 신품종

1.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2. 잔디패랭이보다 더 크고 화려한 꽃방식
3. 여름에도 짓무르지 않는 상록성의
있는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4. 군식하거나 라인식물, 혼합식재시 앞쪽식물,
옥상조경, 돌틈식재 등에 이용하면 좋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031-634-7990

주문이 밀리는 관계로 선착순 주문생산 합니다.
1,000본 이상 ◆가격 본당 1,200원

개량꽃잔디에 이은 또 하나의 신화창조

출시준비끝!



빨강색 꽃잔디 레드아이

1. 빨강색의 화색은 매우 강렬하고 화려하다.
2. 생육이 강건하고 자람이 빠르다.
3. 군식하거나 옥상, 띠가든으로 잘 어울리는 소재
4. 개량꽃잔디 등과 혼식해도 잘 어울려 더욱 증진시킨다.



레드아이 일반꽃잔디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031-634-7990

취미로 기르는 우리야생화-③

용의 쓸개를 담은 싹들 “용담”



전국의 키작은 풀밭 어디에서도 볼 수 있으며 특히 고산에서도 볼 수 있는 재배적 적응력이 매우 넓은 식물이다. 보통 높이는 20~70cm 정도로 자라지만 재배환경에 따라서 1m 이상도 키워낼 수 있다.

잎은 마주나고 끝이 뾰족하며 광택이 난다. 꽃은 길이 4~5cm 정도로 큰 고깔 모양의 종형으로 꽃잎은 5갈래로 갈라지는데 해가 뜨면 벌어지고 해가 지면 모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리가 내려도 얼마간은 계속 꽃을 피우기도 한다. 종자 봉은 겉쪽과 같이 생긴 주머니 모양으로 미세한 종자를 가득 안고 있다.

번식은 주로 종자를 건조저장 후 이른 봄에 파종하면 발아가 잘되는데 종자로 번식할 경우는 담년 개화를 하지 않고 이듬해 가을에 개화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번식이 아닌 경우에는 6월을 줄기가 서게 되면 2마리씩 자르거나 모래나 완토마사이에 꽃이 재배하면 뿌리가 쉽게 내리다 그해 키작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어 분경의 소재로 매우 좋다. 용담은 약간의 점집성이 있는 토양을 좋아하고 물기가 재배하는 토질을 좋아하므로 관리는 오히려 편한 편이다. 그러나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토양의 사용과 관리 방법을 달리 해야 하는데 절화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토하고 많은 꽃을 피워야 하므로 물빠짐이 좋고 비옥한 토양의 퇴비를 많이 넣고 쓰러지지 않도록 발을 쳐 키를 1m이상이 되게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화단 재배의 경우는 6월 이전에 일회 전장을 하여 단분지성으로 만들고 너무 못지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물은 분경용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포기수를 많이 심더라도 양분을 최대한 적게하여 키를 낮추어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용담은 종과 아주 잘 어울리는 가을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분경의 경우 분에 들어는 분갈이의 시기는 가을꽃이 지고 난 후부터 이른 봄까지가 적당하고 이때 고령비료를 주어도 좋다.

병충에 피해는 별로 없으나 고온 건조에는 매우 민감하므로 여름철 혹은 봄철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고 햇빛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최근 우리꽃에서 육성한 하늘용담은 키가 다 자라면 20cm이고 전장을 하지 않더라도 화단과 같은 분경으로 자라고 작은 분경으로 재배할 경우 키가 매우 작고 꽃은 많이 피는 아주 좋은 분경을 혹은 옥상, 띠가든용 품종이 있다. 하늘용담은 백두산에서 자라는 산용담이 흰색인데 비해 보라색의 꽃을 피우지만 특성은 흡사 비슷하다.



모주에서 심는 방법



일차포기



2~30cm까지 자란 심수



심수를 트레이에 심을



공정육묘용 트레이에



뿌리용담이 완성된 트레이에



분경용으로 식재

토종허브를 찾아서

연재 ③

좁은 나라 음식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배초향」

배초향은 햇볕이 잘드는 양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과의 관심과 이용은 완전히 다른 식물이다. 배초향은 햇빛을 많은 식물로 분류되는 여러해살이풀로 향이 강하고 독특한 경향도 지방에서는 민물매운탕에 넣어 넣어 먹거나 전을 부지거나 또는 사철탕이라는 요리에 사용하는 식물이다.

그러나 경상도와 전라남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매우 다르다. 이들도 경상도에서는 오히려 배초향이라 하면 모르고 방아풀 혹은 방아잎이라 표현한다.

그 향기는 맛을 들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향으로 일반적인 햇빛 향보다 더욱 진한 향에 배초향을 섞은 느낌이라 표현할까, 하여간 매우 독특하고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물고기의 비린내와 풍물의 노린내가 없애주고 입맛을 돋우는데 한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구토를 없애주고 감기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배초향의 잎이 시판중인 동맥경화 치료제와 비슷한 정도의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배초향은 재배가 매우 쉬운 어디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집주변 혹은 화분에 2~3 포기만 길러도 관상가치는 물론 좋은 향기식물이 될 수 있다. 전혀 먹여보지 않은 분들은 약간 음식에서 재배하면 향이 달하게 되므로 이용해 볼 만하고 종자와 포기나누기로 재배한다.



향기배초향



향기배초향 잎이 돋아나는 향기배초향(약용)



그리고 우리꽃에서 최근 시판에 들어간 황금 잎배초향은 향과 맛은 동일하되 꽃이 오래피고 아름다운 황금색의 잎을 감상하는 관상식물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원자는 어린시절 이 배초향의 열매고추리를 이용하여 만든 자반만한 한니면 정말 밥 한그릇은 게는 감추듯 하였다. 참죽 나무의 자반과는 또다른 향과 맛을 낸 뿐만 아니라 기름에 튀겨 바삭거리리는 치감과 함께 한 입 감도는 그 향이 비오는 오를 땀 그린다.

제2회 우리조경인상 大賞 **중국을 가다!!**



태안군청 임수준 계장

편집자주

「우리조」에서 보급한 우랑의 소재를 현장에 잘 적용하여 한 차원 높은 경관연출을 가능하게한 업적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조 경관상」이 올해로 2회를 맞는다. 대상 선정업체 담당자들과 우리조 직원 2명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연수를 다녀왔다. 중국연수를 함께 다녀온 태안군청 「임수준 계장」의 글을 실는다.

유기 있는 듯 둘러온다.

물결 낚, 현지 가이드의 기상 호령에 쫓기듯 몸을 추스른 일행은 서둘러 백두산 여정을 재촉했다. '이곳에서 조금만 가면 백두산에 도착한다.'는 기대감에 피로를 잊은 채 우리는 백두산 정상을 향하여 시아를 좁혀갔다.

북파(北坡-북쪽 언덕)코스를 택한 일행은 1시간 30여분 만에 산문(山門)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잠자코 같이타고 가야 한다. 산정을 바라보니 대관령 구비보다도 훨씬 더 급이진 외길이다. 40%가 넘는 경사도로를 타고 70km에 가까운 속도로 지그재그 길을 달리는 운전 솜씨가 능숙한단한 말이나 할까

게 차를 모는지 모르

는 내 배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차를 빨리 모냐?'는 성화에 「순환 횡수가 많아야 승인이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운전기사의 답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지만 금방이라도 곧 두뇌파질 될 듯한 곡예운전에 순간순간을 조아라한다. 첫차에 오른지 불과 15분만에 일행은 백두산의 천문봉(2,670m)에 다다랐다. 산

우랑도(牛廊渡-전우와 지녀가 건넌 곳)를 거쳐 높이 68미터의 거대한 물기둥을 만난다. 폭포수는 여름, 겨울을 불문하고 일출과 눈 사이를 끊임없이 흐른다. 그때마다 어머니 마흔 곁으로 술을 내린다. 지친 목이마도 축일 겸 폭포수를 들이 마시니 마음까지도 시원하다. 일행은 물병에 천지수를 가득 채운다.

허기지기도 한 참에 노천 온천에서 삶은 달걀 두어 개를 집어 먹고는 서둘러 장백산(長白山)으로 향했다. 바로, 며칠 전에 개장했다는 장백산립경구(長白山林峯區)를 관광하기 위해서다. 백두산에서 장백산까지는 90km. 백두산자연보호구역의 비포장도로를 따라 밀집 숲을 달리고 달리다보니 저녁 8시, 오후 1시에 출발하여 안도를 거쳐 왔으니 딱딱 7시간을 달려온 셈이다. 우리나라 같은지 2시간도 안 되는 거린데...

다. 날, 석림 관곽에 나선 일행은 함경도 해산을 앞에 두고 압록강변을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한의 일상을 목격하는 뜻밖의 기회를 얻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한 집, 정장까지 입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땅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산아는 나의 마음속에 간직된 고향 마을 그대로다.

기다려다 내(川) 하나를 두고 갈 수 없는 땅, 무릎 밖에 차지 않는 개울 앞에서 머물러야 하는 일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했지만 강가에 길게 늘어선 빨래하는 아낙네의 모습에서, 옥수수밭을 따는 춘부들의 어우름에서 일행은 우리가 어릴 적 체험했던 70년대의 힘겨운 생활을 기억해 냈다.

오전 내내 석림경구의 돌 숲을 구경하고 일행은 지난 길을 되짚으며 압록강 변을 따라 장백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해산은 또 다른 감화로 다가왔다. 강과 바위가 어우러진 압록강변의 조화는 석림의 기암절벽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금수강산 그 자체였다.

설령 같은 땅에 사는 같은 민족의 편견이 깨어있었다 할지라도 그 곳은 사람 살아가는 것이 함께 있는 그런 곳이라 더욱 아름답다.

이번 여행에서 내가 본 중국의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가 공존하는 북방모습이다. 19세기의 인력거와 20세기의 삼륜차와 21세기의 고속버선이 함께 다니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 연결 시내의 발전상에서 우리의 자만이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라는 생각이 무렵에 떠올랐다.

끝으로 짧은 시간동안 값진 생연을 만난 유관수, 김영환, 박종현, 황현준, 마성민 님의 회포와 여행 내내 수고에 주신 서준형, 김효철, 김현철 님의 고마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로 전한다. ()



장 순행

남방항공에 몸을 실은 지 불과 2시간 여 만에 비행기는 장춘(長春) 하늘에 접어들었다. 하늘 아래를 바라보니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농장이 지평선을 가른다.

우리를 기다리던 「우리조」 중국현지법인 김효철 지사장이 일행을 반갑게 맞으며, 미리 대기해 놓은 전세버스를 길을 안내한다. 일행을 태운 전세버스는 공원을 빠져나오자 한적한 도로를 달리며 안도(安圖)로 향주한다. 장춘-길림-고하-돈화-안도-이도백하로 이어지는 열 두 시간 동안의 운행이 낮과 밤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지만 피로감보다는 점거움에 사로잡힌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버스는 어느덧 돈화(敦化)에 접어들었다. 여기부터는 연변(延邊)이다.

「연변」하면 풍상 김립성내의 조선족 지치주를 말하지만, 사실은 돈화(敦化), 안도(安圖), 연길(延吉), 용정(龍井), 화룡(和龍), 도문(圖門), 훈춘(琿春), 왕청(汪清)의 8개 도시를 묶어서 연변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조선족이 41%나 된다(하) 지치주만 지칭할 것도 당연한 듯하다.

처참 한대로 스치는 연변의 풍경이 한기하게 다가온다. 자연이며 풍광이며 그 속에 묻혀 있는 삶이 우리의 고장 산천의 그것들과 흡사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그것들은 그 저 새롭기만 하다. 아마도 연변이란 곳이 우리의 마음속에 서 너무 오랜 시간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어서일까

안도에서 저녁 식사. 장춘까지는 396km, 연길까지는 71km로 표시된 이정표조차 식치못 눈은 들어온다. 자정이 넘어서야 일행의 첫 숙박지 이도백하(二道白河)에 도착했다. 백두산을 모르는 첫 태안인 이 곳은 이도춘과 백학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명인데 호기심이 많은 나에게는 특별한 연

정에서 바라보는 장백산 맥의 줄기들이 희미한 구름 속에서 꼬리를 잊는다. 그 눈앞만 하던 주변 산들이 저만치 발 아래에 자리 있는 것을 보니 그제야

백두산이 높은 산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잠시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불과 80여 미터. 일행은 10여분 만에 천지에 도착했다. 천지의 모습은 신비함 그대로다. 말로만 들어오던 천지를 직접 접해보는 순간 잠시 찻지 모를 감금증에 빠져들었다. 이 높은 곳에 웅장한 듯이 생겨난 이유며, 산천어가 쉽게 될 것 같지만, 승하사와 관련된 몇몇 이야기까지... 아, 천상호수의 신비함이 이런 것들이었었나

천지는 시시각각 변하는 과학한 날씨로 맑은 하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그 런지 천지에 올라 천지를 못 보는 사람이 천지라서 천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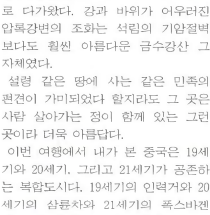
그저 멍하니 바라보다 눈을 지그시 감고 「오늘 날씨가 맑아 이렇게 천지의 웅장함을 자세히 볼 게 됨에 감사함. 1년에 10여일밖에 간 날이 없는데...」 벅차오르는 감동을 뒤로하고 다음 코스로 향하려니 발걸음이 무겁다. 못내 신비의 장관이 아쉬운 듯 일행들은 천지의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주차장에 내려와 전세버스를 타고 10분여를 갈까? 그럴뿐 폭포류까지 목격하기가 더가졌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너머로 웅장한 물줄기의 흐름이 일행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조바산의 마음에 안절부절못하는 절음을 재촉한다. 백두산에서 가장 웅장하다는 장백폭포. 멀리서 보기에오 그 자체가 장관이다. 천지의 유일한 배수 통로인 달포를 통과한 천지 수(水)는 승하사(承湖河-땃물이 흐르는 강),



사진: 압록강을 두고 두 별개를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사진: 새로이 개장한 장백산립경구 입구



석림의 기암절벽
시암하에 흐르는 폭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금액에 상관없이
구독/후원을 하시면
봉함: 235100-507162
예금주: 박공영 (우리쌀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전화: (031)634-7990 팩스: (031)634-7991
(현재누적금액: 91만원)